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참고자료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에너자원정책과 김성진과장, 정의용 사무관(2110-5412)

2011년 에너지업계 3大 정책방향 선포

- 녹색산업 육성, 에너지자원확보, 온실가스감축 -

□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'11.2.8일 **2011년도 『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』에 참석**하여, 지난 한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, 신년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

○ 박차관은 2010년은 에너지산업의 세계무대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어 **신성장동력**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해로 평가함

- 태양광·풍력 등의 수출산업화에 매진한 결과,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전년대비 2배 **증가**('09년 24억 달러 → **'10년 47억 달러**)

-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영국 Dana사 인수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치(석유가스 :10%, 6대 전략광물 : 27%)를 무난히 달성

□ 아울러 박차관은 **2011년 3가지 정책비전과 목표**를 제시하면서, 에너지업계의 **협조**와 **적극적 동참**을 요청함

○ 첫째,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**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**가 가장 중요함을 역설

- 이를 위해 제2, 제3의 원전수출을 위한 원전수출체계 정비, 신재생에너지분야 글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 및 지능형전력망의 상용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

○ 둘째,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에 따른 수급불안의 해소가 필요

- 이를 위해 '11년도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,

  * 석유·가스 : ('09) 10% →('10) 13%
  * 6대 전략광물 : ('09) 27% →('10) 29%
  * 리튬 등 신전략광물 : ('09) 5.5% →('10) 10%

-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발전소의 차질 없는 건설, LNG 신규도입계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

○ 셋째, 녹색성장 글로벌리더로서 법세계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면서, 이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

- 특히 녹색산업분야에서 대·중소기업간 그린크레딧, 그린파트너쉽 등을 통해 동반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 예정

-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산업계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시기와 부담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며,

- 아울러 에너지가격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임을 시사함. 특히 전력요금의 경우 장기로드맵을 만들어 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예정임

□ 한편, 이 날 신년인사회에는 에너지업계, 공기업 및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약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함

< 붙임 >

2011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

1. 신년인사회 개요

○ **목 적** : 에너지·자원 정책방향 공유 및 에너지업계 신년하례

○ **주 관** : 한국에너지재단(이사장 : 김기춘),
2013WEC총회조직위원회(위원장 : 신헌철)

○ **일 시** : 2011. 2.8(화) 17:00~18:00

○ **장 소** :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그랜드볼룸(2층)

○ **참석대상** : **약 250명**

- **지식경제부 차관**
- 에너지관련 기업체 및 협회·단체 CEO
- 에너지 분야 정부투자·출자·출연기관 CEO
- 에너지자원분야 전·현직* 공무원

MKE

2. 세부 행사일정

(진행방식 : 스탠딩 뷔페)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6:55~17:00(5분)	차관 입장	· 신정수 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영접
17:00~17:02(2분)	개회 선언	· 사회자(김동용 재단 대외협력본부장)
17:02~17:05(3분)	인사말	· 김기춘 에너지재단 이사장
17:05~17:08(3분)	WEC총회조직위 활동보고	· 신헌철 WEC총회 조직위 위원장
17:08~17:12(4분)	**신년사**	· **차관**
17:12~17:15(3분)	건배제의	· 에너지업계 CEO
17:15~17:45(30분)	리셉션	· 참가자 리셉션 및 환담
17:45~18:00	행사종료	